

광양공공도서관, 학생 대상 독서·토론·글쓰기 호응 뜨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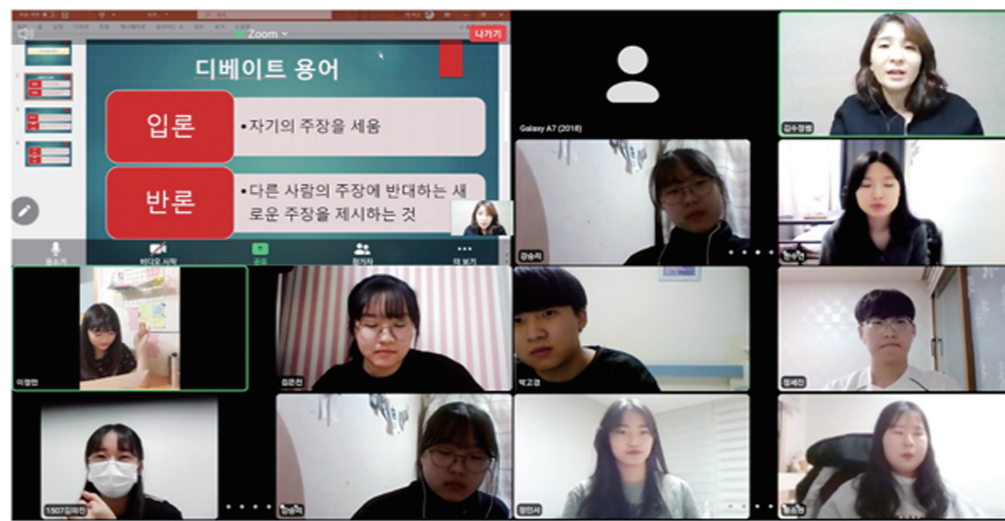
참여학생 10명 중 9명 “프로그램이 도움” 긍정적 평가 ‘말하기 등 의사 표현력 향상’·‘독서에 관심이 생김’ 등

전라남도교육청 광양공공도서관(관장 김형구)이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광양 지역 초·중·고등학교 13개교를 찾아가서 운영한 ‘독서·토론·글쓰기 프로그램’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253명을 대상으로 ‘독서·토론·글쓰기 프로그램 효과’를 조사한 결과, 94.2%가 ‘프로그램이 도움이 됐다’라고 밝혔다.

효과 중 가장 긍정적인 것은 ‘말하기 등 의사 표현력 향상’(44.7%)이 1위였다. 이어 ‘독서에 관심이 생김’(29.3%), ‘글쓰기 실력 향상’(23.6%), ‘어휘력 향상, 토론이 즐거워짐 등 기타’(2.4%) 등을 꼽았다. 또한 응답자의 10명 중 9명은 ‘프로그램에 만족했다’고 답했다. 대상별로 초등학생이 97.9%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96.4%), 중학생(75%)의 순이었다.

광양백운중 1학년 김 모양은 “토론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의 말싸움이라 생각했는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배웠고 토론이 재밌어졌다”며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양공공도서관 김형구 관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주제를 토론하고 글쓰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것 같다. 올해도 독서토론문화 활성화를 꾀하고 학생들의 표현력, 사고력 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백영 기자



화순중학교, 교육활동 성과물 전시회 개최

학생들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참여

화순중학교(교장 조병연)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2020. 교육활동 성과물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축제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그 대안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협의를 거쳐 진행하게 되었는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참여하였다.

이번 교육활동 성과물 전시회는 휴업과 온라인 수업 등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1년간의 교과 활동, 동아리 활동, 방과후 활동 등의 결과물을 전시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깊다.

교실 앞과 복도 등 학교 곳곳에는 1년을 마무리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작품이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국어과의 시화, 영어과의 독서만화, 과학과의 포스터, 미술과의 판화 및 색채구성 작품, 사회과의 타이포그래피와 독서신문 등 여러 교과와 다양한 작품들이 벽면을 가득 채웠다.

그중에서도 수학과와 시어핀스키 트리, 쌍대정다면체 모형은 화려한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고, 기술과정과 주책 모형과 동아리 활동의 캘리그래피 등 수준 높은 작품은 감탄을 절로 일으켰다. 화순중 학생 박00은 “내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져서 꼭 축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성과물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이야기하고 구성하는 과정이 매우 즐거웠으며 전시회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뿌듯했다.”고 말했다. 조병연 교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학생들의 다양한 면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힘든 시기에 서로 하나가 되어 스스로 준비하고 즐기는 과정이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또 하나의 추억으로 남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광주시교육청, 제34회 광주교육상 시상식 개최

동부교육지원청 장영신 (前)교육장·창의융합교육원 양정기 원장·시교육청 나종훈 (前)행정국장 수상

광주시교육청이 7일 오후 3시 시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제34회 광주교육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수상자는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장영신 (前)교육장, 광주창의융합교육원 양정기 원장, 광주시교육청 나종훈 (前)행정국장 등 3명이다. 광주교육상은 광주 교육가족 중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현장교육개선에 헌신·봉사하며 청렴한 광주교육 발전에 기여한 자를 발굴·표창해 그 공을 기리고 교육자의 자기진작을 위해 마련된 시상제이다. 올해로 34회째 시행되고 있다. 시상식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

며 교육감을 비롯한 최소한의 교육 가족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수상자 공적 소개를 시작으로 상패 및 부상 수여, 교육감 인사말, 수상자 소감 순으로 진행된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장영신 (前)교육장은 40년간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의 소리에 경청했고, 행복한 광주교육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면서 교장공모제 확대 등 인사제도 혁신에 기여했다. 광주창의융합교육원 양정기 원장은 미래 인재 양성과 학교민주주의 실천에 이바지했고, 진로진학·창의인성교육·혁신교육·창의융합교육을 위해 헌신하며 광주교육 발전에 기여했다.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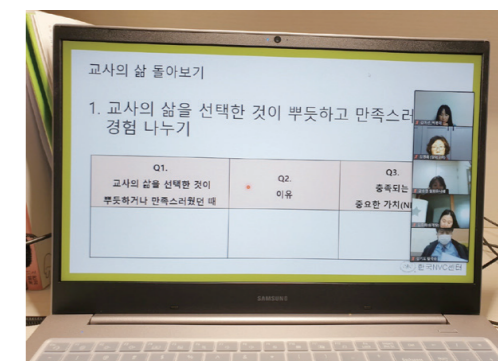
히 광주시와 협업해 광주의 특색을 반영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운영을 통한 혁신교육 활성화에 공헌했다. 또 광주시교육청 나종훈 (前)행정국장은 학교행정 및 회계업무 개선과 발전, 소통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대외 협력에 이바지한 점이 인정돼 수상자로 선정됐다. 장위국 교육감은 “이번 광주교육상 수상자들은 시교육청이 추구하고 있는 교육철학을 현실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셨다”며 “오직 교육만을 위해 열심히 걸어오신 세 분의 발자취는 후배 교직원들의 귀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목포교육청, ‘2021. 치유와 성장의 자기돌봄! 그 여정의 시작’

비대면 연수 개설...12일까지 퇴근 후 3시간씩 5회 실시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갑수)은 ‘2021. 치유와 성장의 자기돌봄! 그 여정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2021년 첫 비대면 연수를 개설하였다. 1월 4일~ 12일까지 퇴근 후 19:00~22:00까지 3시간씩 5회 실시한다.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 20여명의 교사들이 모여 교사로서의 삶을 돌아보고, 마음의 공간을 넓혀 학생들을 더 공감하고 더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연수는 교사의 삶 돌아보기, 갈등의 소용돌이에서 내면의 힘 회복하기, 자기 비탄에서 자유로움, 내면의 강요에서 자유로움, 감사의 마음으로 살기 등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박기원 강사(한국비폭력대화센터)를 초대하여 진행했다.

한 연수생은 “늦은 시간 피곤해서 연수에 잘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는데, 1회기가 끝나면서 다음 연수는 어떻게 진행될까? 라는 기대와 설렘을 품게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또 다른 연수생은 “짧은 시간 동안의 배움이지만 지난 교직생활을 돌아보고 동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 2021년 새해 선물과 같은 연수를 만났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한편, 목포교육지원청 김갑수 교육장은 “교사·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존중·소통·학생자치의 평화교육 실현이 중요하다.”며, “목포교육이 혁신의 날개를 활짝 펴고 평화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들의 건강한 자기돌봄, 함께하는 동료성으로 교



육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목포교육지원청은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품을 가진 교사, 스스로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역량있는 목포의 교사, 자부심을 가진 교사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 할 것을 약속하였다. 목포=박정수 기자

